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해법은 어디있나?

정부, 계열화업체, 농가가 축산계열화법을 중심으로 화합해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필수

닭고기 산업은 시장개방 확대, 소비시장 침체,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의 품질문제, 사육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계열화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육농가의 사양관리 문제, 장기고정 사육농가의 감소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의 감소 문제가 발생해 왔다.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부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계열화법에 따르면 '계약농가는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각 계열화사업체 내에는 농가협회가 설치되고 있으며, 앞으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축산계열화법 상에 명시하고 있다. 식품농림축산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적극 협조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각 시·도에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노조가 아닌 상생의 협의체로

(사)한국계육협회에서는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가 동반성장하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자 '계육인 상생진전대회'를 개최하고 육계계열화사업에 관한 상생협력협약(서)을 체결하는 등 이번 대회를 계기로 계열화주체와 사육농가의 해묵은 갈등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사)한국계육협회는 계열화사업자들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현재 추진되는 각 계열화사업체의 농가협의회 창립이 어용이라고 언급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각 계열화사업체의 농가협의회의 창립은 올해 제정된 축산계열화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농가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농가협의회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농가협의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 농가협의회를 노조라고 생각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농가협의회가 국내 육계산업의 생존을 위한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 간 상생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계열화사업자들이 농가협의회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사양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재로써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한·중 FTA 대비 생산비 절감에 노력

(사)대한양계협회에서는 농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축산계열화사업법이 과거 '갑'과 '을'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회사주도의 농가협의회가 구성되는 경향이 크다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일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달 남원을 시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육계 순회교육에서도 최근의 육계현안 설명과 아울러 축산계열화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1980년대 처음 도입된 미국식 계열화사업이 95%까지 정착되는 과정에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들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계열

화법 시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S사의 사육비 인하에 따른 분쟁조정 소송돌이가 더욱 거세지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강한 의지와 계열화사업체들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미 FTA와 한·EU FTA 체결에 이은 한·중 FTA 협상추진으로 축산경쟁국과의 가격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상생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FTA 체결로 매년 2%씩 관세가 철폐되고 있으며 체결된 지 10년이 되는 2020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어 국내산 닭고기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진다. 또한 한·중 FTA협상에서 모든 닭고기 제품이 양허제의 품목에 지정되지 않을 경우 국내 육계산업 시장을 중국에 헌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서로 반목의 시대를 접어야 한다. 서로 상생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계열화업체, 농가들이 축산계열화법을 중심으로 화합을 이룰 때 진정한 육계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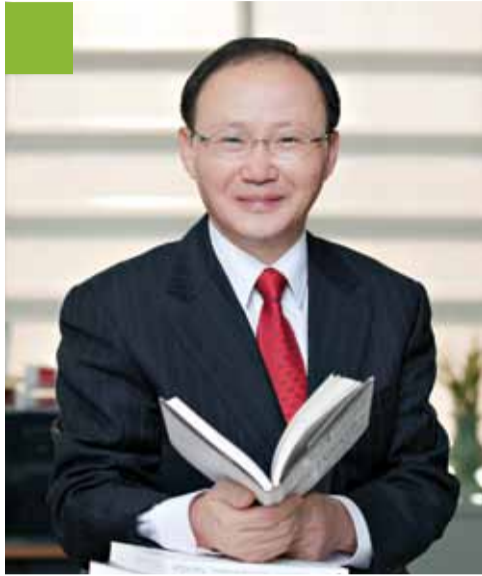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가공처리법'에 의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축산물HACCP기준원
조 규 담 기준원장

축산물HACCP기준원 조규담 기준원장은 34년 이상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축산정책, 축산물 유통개선 및 안전, 위생관리, 그리고 가축질병 방역 등 축산분야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 나름대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축산물HACCP기준원의 원장으로 일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국 과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현 농림축산검역본부)부장으로 근무하기도 한 조규담 기준원장은 2002년과 2010년 두차례 발생한 구제역 방역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가축질병 관리가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행복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또한 조규담 기준원장은 축산물 유통 및 위생, 안전 담당과장으로서 도축장 시설과 위생관리 개선 및 냉장등급판정제도 도입 등을 위해 전국의 도축장과 가공장을 다니면서 업계 관계자를 많이 만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야말로 국민과 소비자의 행복에 직결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소중한 경험이 기준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HACCP 전용망(체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조규담 기준원장으로부터 육계 HACCP 인증 현황과 지원책, 기준원의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축산물HACCP기준원은 지난 9월 26일 전(全)단계 HACCP 적용 축산물 공급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주)참프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뷰

HACCP 체인 구축사업을 통해 농가의 수익 창출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기대

계열화사업체를 중심으로 육계 분야 HACCAP 지정률 60.5%로 타 축종에 비해 높아 찾아가는 기술상담, 인증수수료 감면, HACCP컨설팅사업 등 다양한 농가 지원책 구축

■ HACCP체인 구축망이란 무엇이며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HACCP 체인(전용망)」이란 사육(농장), 도축, 가공, 운반, 보관, 판매 등 축산물의 생산에서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를 통해 유통되는 축산물 HACCP관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HACCP Chain 구축의 궁극적인 목표는 축산물의 모든 유통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된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전국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원은 금년을 「HACCP Chain(전용망)구축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ACCP체인 구축사업을 위해 지난 1월 평창 영월정선(대관령 한우) 축협과의 MOU체결을 필두로, 안성마춤한우, 춘천 하이록 한우사업단, 육계계열화주체인 (주)참프레, (주)체리부로와 연이어 MOU를 체결하였는데, HACCP지정이 크게 늘고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사업추진 성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 육계 분야는 HACCP인증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3년 9월말 현재 육계분야의 HACCP 지정률은 3만수 이상 전업농 874개 농가 중 529개 농가가 HACCP인증을 받아 60.5%로 전체 농장 지정률 27.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인증률이 높은 이유는 육계 분야가 계열화사업체를 중심으로 회원농가들의 HACCP인증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계 분야 계열화사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40개가 있는데, 전국 출하 물량의 4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규모화된 계열화사업체가 계열화사업 유통물량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육계계열화 주체를 중심으로 HACCP체인 구축확대를 통해 계열유통의 각 브랜드 경영체에서 HACCP 인증을 높여 이를 계기로 육계 분야 HACCP체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중소규모 육계농장에 대해서는 표준기준서 제작 보급 등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농가들을 위한 HACCP 관련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HACCP인증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농장(업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기술상담」을 통해 컨설팅 수준

의 HACCP인증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원 고객만족센터(☎031-390-5238~9)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www.ihaccp.or.kr)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원과 HACCP Chain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한 계열화사업체의 회원농장 및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수수료를 20~50% 감면하고 전담심사관을 지정하여 맞춤형 기술지원과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HACCP컨설팅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ACCP 컨설팅 사업의 경우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비용의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농업인이 3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종료 1년 안에 HACCP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축산농가가 HACCP인증을 받으면, 축종에 따라 마리당 최소 60원에서 최대 17만원까지 지원되며, 농가당 2천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원장 취임 1주년을 맞고 계십니다. 앞으로 기준원장으로서의 활동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2013년을 「HACCP 전용망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HACCP에 의한 선진 축산물 위생안전 관리체계, 즉 (Farm to Table) 체계를 실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하기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면 앞으로는 HACCP 체인을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것에 힘쓸 것입니다. HACCP 체인 구축사업을 통해 인증 농가의 수익 창출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되는 만큼, 농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드립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월 31일부터 우리원의 기관명칭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바뀌게 되며, 축산물 HACCP 체인 구축사업과 사실상 내용이 같은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는 축산물HACCP 체인 구축사업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우리 임직원은 앞으로 중소규모 농장에 맞는 HACCP 위해분석 모델개발 확대, HACCP 체인 구축사업 본격화, HACCP 이력추적제도 도입, 사후관리 체계 강화 등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 HACCP 활성화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HACCP 인증마크만 확인하면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밥상, 국민행복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모든 임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H O T
ISSUE

0 0 2

'2013 전국 계육인 상생전진대회' 성황리에 마친다

계열사와 농가대표 간 상생협력협약서 체결...홍보대사 박은지 통해 TV광고 등 기대



(사)한국계육협회는 지난 11월 5일 안성팜랜드에서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1회 전국 계육인 상생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육계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화합과 단합을 다져 지속적인 동반성장 및 육계산업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사)한국계육협회 정

용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운명희 국회의원, 김명연 국회의원,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남성우 대표이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이홍재 위원장, (사)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및 각 계열화사업자 회장단·대표이사와 각 계열사 농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정병학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병학 회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오경태 기획조정실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규성 위원장, 김학

2011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시장 개방 확대, 한·미와 한·EU FTA 체결, 한·중 FTA 협상단계 등으로 한국 육계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앞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인식에서 상호 배려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육농가와 계열사 모두 경쟁력에 비해 높은 사육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진 사양기술을 과감히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통해 맺은 공정한 사육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농가협의회 중심으로 서로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경영애로를 함께 해결하고 소비 홍보를 위한 자조금 사업에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행사로는 식전 행사로 명사초청 특별강연이 진행되어 농가들에게 필요한 육계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공

식행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3명과 한국계육협회장상 13명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으며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다. 또한 방송인 박은지 씨에 대한 (사)한국계육협회 홍보대사 위촉식과 박은지 씨가 출연한 '닭고기 가치'를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상영하였다. 앞으로 (사)한국계육협회는 '닭고기 가치' 영상을 통해 TV광고와 SNS를 통해 닭고기 소비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식행사 마지막에는 계열화사업자 대표단과 농가협의회 회장들이 함께 모여 상생협력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앞으로 국내 닭고기산업이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 사이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축산경쟁국과의 생존 경쟁을 이겨내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위생적인 닭고기를 생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기대해 본다.

농가와 계열사의 상생기틀 마련을 위한 정책특강

지속가능한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와 계열사의 상호협력 강조

'제1회 계육인 상생전진대회'에서는 정부정책자들의 특강이 마련되었다.

'육계산업/계열화사업의 성과'를 설명한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먹거리의 부족사태,

FTA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앞으로 사육농가와 계열화사업자들이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생산성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표준계약서 사용을 실천하고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정책방향'을 설명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은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며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고 계열농가협의회를 통한 분쟁합의 유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

여 공정거래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건전한 상생관계를 구축한 사업자는 모범사업자로 지정해 각종 지원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사업발전을 강조한 김종구 과장은 농가와 계열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하지 말고 상호 협력해 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상생',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는 참석자들



▲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점화식

▼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송인 박은지 씨와 '닭고기 가치' 영상



▲ 대회사를 전하는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자들



▲ 초대가수 태진아와 현숙의 공연모습



H O T
ISSUE

0 0 3

(주)사조 인티그레이션, 농가협의회 창단식 김제서 개최

농가 상호간 협의와 더불어 회사와 농가간 정보공유에 힘쓸 것



(주)사조 인티그레이션(대표이사 이창주)은 지난 10월 29일 전북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사육농가협의회 창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이흥재 부회장, (사)한국계육협회 표수일 부회장, (주)사조 인티그레이션 이창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농가협의회 구성을 축하했다.

(주)사조 인티그레이션의 첫 농가협의회 운영을 맡게 된 김상근 회장은 대회사로 통해 "협의회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을 합해야 한다"며

"상생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는 협의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낮은 자세로 함께 협의회를 이끌어 가자"고 포부를 밝혔다.

(주)사조 인티그레이션

이창주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사조는 처음 사육농가 22개, 사육두수 25만수로 시작해 현재 사육농가 250개, 사육두수 9천만 수에 이르고 있으며 생산지도 평균 330에 이를 정도로 규모와 생산성 모두 성장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은 농가가 회사와 상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농가협의회 총무를 맡게 된 라성주 사장이 회칙을 발표했다. 회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양관리 연구 및 질병 방역, 환경개선사업 등 생산성 향

상에 대해 농가간 상호 협의하며, 농가 협의회와 회사가 사육에 대한 정보요구, 사육횟수, 병아리의 품질과 입추 및 시기, 사료의 품질 등에 관하여 협의한

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또한 우수농가와 장기근속농가에 대한 포상 및 감사패 수여식, 김제신축공장 조감도 발표 등의 시간도 가졌다.

상생을 위한 매개체 역할 할 것



김상근 농가협의회장

10월 현재 (주)사조 인티그레이션의 평균 생산성지수는 33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병아리와 사료 등 원자재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회사에서 농가에게 1년에 사육회전수 6회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가들은 큰 불만없이 회사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농가협의회는 농가와 회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대내외적으로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사육두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만큼 농가들의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와 회사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농가협의회장의 책임은 더욱 더 중요해지리라 본다. 앞으로 회사와 농가가 서로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상생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3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구 현황

지역별 선거구 및 대의원 명수

*대의원 선거일 일시: 12월 12일(목)

선거구	시군	대의원 (명)	시군선거 관리위원회
1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	춘천철원축협
2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속초시	1	홍천축협
3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2	김포축협
4	연천군	2	파주연천축협
5	가평군	1	가평축협
6	양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서울시	1	포천축협
7	양평군	1	양평축협
8	여주군	1	여주축협
9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1	이천축협
10	용인시, 수원시	2	용인축협
11	안성시	2	안성축협
12	평택시	1	평택축협
13	화성시	2	수원축협
14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함천군	1	함천축협
15	창원시, 함안군, 창녕군	1	창녕축협
16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부산시, 울산시	1	밀양축협
17	진주시,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1	진주축협
18	안동시, 영주시,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1	안동봉화축협
19	상주시,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2	상주축협
20	구미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2	의성축협
21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청도군, 대구시	1	영천축협
22	영암군	1	영암축협
23	강진군, 장흥군	1	강진완도축협
24	목포시, 신안군, 무안군	2	목포무안 신안축협
25	함평군	2	함평축협
26	영광군, 장성군	1	영광축협
27	진도군, 해남군	1	해남진도축협

28	나주시, 화순군, 광주광역시	2	나주축협
29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2	곡성축협
30	군산시, 익산시	3	익산군산축협
31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2	완주축협
32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1	무주진안 장수축협
33	정읍시	3	순정축협 정읍지점
34	순창군	1	순정축협
35	고창군, 부안군	2	고창부안축협
36	임실군	1	임실축협
37	남원시	2	남원축협
38	천안시	2	천안축협
39	공주시, 대전시, 세종시	2	공주연기축협
40	당진시	2	당진축협
41	아산시	1	아산축협
42	서산시, 태안군	1	서산축협
43	홍성군	1	홍성축협
44	예산군	1	예산축협
45	보령시	1	보령축협
46	청양군	1	청양축협
47	부여군	2	부여축협
48	서천군	1	서천축협
49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2	논산계룡축협
50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1	충주축협
51	음성군, 증평군	2	음성축협
52	청주시, 괴산군	1	괴산증평축협
53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2	청주축협
54	인천	1	인천강화옹진축협
55	제주시, 서귀포시	1	제주축협
선거구: 55개		대의원수: 80명	

지부탐방 토종닭 산업의 메카, 전북 정읍지부의 토종닭 시식행사장을 가다

회원농가 모두 하나되어 토종닭 소비 저변 확대의 첨병으로 나서



주상근 정읍지부장

내장산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축산도시이자 토종닭 사육의 메카로도 불리우는 정읍의 가을은 축제의 한마당이다.

특히 지난 10월 2일부터 정읍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제1회 정읍 축산인 한마음 대회'가 열렸고,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농경문화체험관에서는 '제17회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 및 축산물축제'가 열렸다. 축산도시답게 성대하게 개최된 이번 행사에 본 협회 전북지회 정읍지부가 참가해 토종닭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전북대학교 양계산학연협력단과 협력해서

토종닭 부분육을 활용한 소시지, 훈제, 샐러드 등을 시식하면서 토종닭 소비 확대에 노력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주상근 정읍지부장은 지부 회원들과 함께 동분서주 발품을 팔며 토종닭 치킨, 훈제, 백숙 등을 시식하고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특히 토종닭 치킨을 즉석에서 조리해 시식하면서 기존의 치킨은 육계로만 만든다는 상식의 틀을 깨고 신(新) 토종닭 식(食) 문화와 토종닭 소비 저변확대에 첨병으로 나서고 있었다.

토종닭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지칠 만도 한데 쫄깃한 식감과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식인 토종닭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소개한다는 기쁨 때문인지 주상근 지부장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주상근 지부장은 바쁘게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친절하게 답변

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축제나 홍보의 장에 참가해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소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외에도 정읍지부는 정읍시청 축산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적극적으로 정책 제시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자체로부터 ND 오일백신을 지원받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리 대단한 일인 한 것도 아니라는 주상근 지부장은 "스스로가 회원 농가들의 파수꾼이라는 심정으로 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읍지부 회원 농가들이 협회나 정부

에서 주관하는 방역 교육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사양과 방역, 홍보까지 두루두루 겸비한 지부로 우뚝 서고 있다.

현재 80여 농가가 모여 있는 정읍지부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상근 지부장을 중심으로 톨톨 뭉쳐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며 지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과장 김현태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에서 토종닭 시식행사를 진행한 토종닭협회 관계자와 정읍지부 회원들



육계질병가이드 / 대장균증의 특징

Q. 육계를 사육하면서 많이 발생하는 대장균증은 어떤 질병인가요?

A. 닭의 대장균증은 산란계, 육계, 종계, 토종닭 등 닭을 사육하는 곳이면 어느 농장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닭의 대장균증은 주로 2차 감염에 의한 세균성 질병으로 주로 호흡기 질병(ND, IB, AI, APV, MG)의 감염 후에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초생추의 제대염, 심낭염, 간포막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증은 1차 원인세균이기도 합니다. 육계에서 대장균증이 주로 발병하는 시기는 일령 별로 보면 사육후기에 해당되는 3~4주령 이후에 많이 발병하고, 계절 별로는 계사 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겨울철에 다발합니다.

어린 병아리일수록 감수성이 높은 대장균은 닭의 장이나 비강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환기불량, 호흡기 질병 발생 등의 원인으로 병원성을 획득하게 되면 분변으로 세균이 배출되어 계사를 오염시키거나 닭을 감염시키게 됩니다. 대장균은 장염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기 쉬운 세균입니다. 닭의 생리적 특성상 호흡시 공기의 흐름이 비강을 통해 기관, 기관지, 폐, 기낭의

순으로 흐르게 되는데 환기불량에 의한 암모니아가스 발생이나 호흡기 질병(ND, IB, AI, APV, MG) 등에 의해 호흡기관의 방어벽이 깨지게 되어 대장균이 쉽게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낭이 오염되며 곧이어 내부장기로 이동하여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장균증은 감염부위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기낭이 오염되면 기낭염을 유발하고, 복강이 오염되면 간포막염, 복막염 등을 일으키고, 제대염, 관절염이 발생되기도 하며 패혈증을 일으켜 갑작스런 폐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장균증이 발병했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는 대장균에 의한 단독 감염이 아닌 다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복합감염 되었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사양환경, 적절한 환기, 계사 내 적당한 온·습도 유지 등이 중요하며 주기적으로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지면 대장균증의 발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주)체리부로, 간식이나 술안주로 적합한 튀김제품 판매 중



(주)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에어칠링 방식으로 생산한 신선한 닭고기를 원료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체리부로 관계자는 "HACCP 기준에 부합하는 위생설비와 품질등급자동분류시스템 등의 첨단시설로 닭고기를 생산하여 전국적인 유통망을 바탕으로 매일 고객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철저한 사양관리 및 생산·유통시스템을 통해 (주)체리부로는

다양한 닭고기 가공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 간식이나 학교급식, 직장인들의 술안주로도 좋은 100% 국내산 닭고기를 활용한 튀김류 가공제품들이다.

먼저 '텐더스틱'은 신선한 닭고기 안심에 고소한 빵가루를 입혀서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맛 또한 일품인 제품이다. 텐더스틱은 1박스에 8팩이 들어 있다. 또한 '후라이드 치킨 II'는 신선한 닭고기 한 마리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고 바삭하게 튀겨 낸 정통 후라이드 치킨이며 1박스에 15팩이 포장되어 있다. '치킨너겟'은 신선한 닭고기 가슴살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재미있는 모양과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제품으로 1박스에 10팩이 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델리왕'은 콜라겐이 풍부한 신선한 닭고기 날개를 튀겨낸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자랑하며, 1박스에 10팩이 포장되어 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제3기 닭고기자조금 대의원 선거공고

닭고기자조금 운영을 위한 대의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실시코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선거구 및 선출대의원수 : 제 55개 선거구(선출대의원수 : 80명)
2. 선거인 : 선거일 공고일 현재 닭고기자조금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3. 선거일 : 2013년 12월 12일(목)
4. 피선거권자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5. 후보등록접수장소 : 시·군선거관리위원회 문의
6. 투표개시 및 종료시각 : 선거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7. 투표소 위치 : 시·군선거관리위원회 문의
8. 개표소 위치 : 시·군선거관리위원회 문의
9. 후보등록기간 : 2013년 11월 13일 ~ 11월 27일
(후보자 등록자가 대의원수보다 적을 경우 12월 2일까지 연장)
10. 후보자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사진(명함판) 2장, 공명선거 서약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축산업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사본), 학력 및 경력 증빙서류
11. 등록절차 : 본인이 직접 등록 신청함
12. 선거인명부열람 : 2013년 11월 12일 ~ 12월 11일 (장소 : 후보등록접수장소 동일)
13. 기타문의사항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T:02-585-9974, F:02-588-76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T:02-2080-6578)

2013년 11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제6차 관리위원회, 대의원 선거일·선거인명부·선거지침 논의



관리위원회는 12월 12일로 예정된 대의원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의원 선거일 12월 12일...55개 선거구, 대의원 80명 선출 확정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11월 1일 제1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제6차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선거지침사항을 협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홍재 위원장은 “그 동안 다른 축종을 포함한 자조금 사업은 농가들이 어려울 때마다 힘을 보태주면서 산업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소감을 밝히고 “현 2기 관리위원과 대의원들이 대의원 선출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다음 3기 대의원과 관리위원들 선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먼저 관리위원회는 전자회의록 보고와 함께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홍재 관리위원장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 이전을 위해 서울 성내동 소재 사무실에 계약했

으며 조만간 이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사)대한양계협회 임직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에 닭고기자조금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의결사항으로는 대의원 선거일을 12월 12일(목)로 확정하고 지역별 소비촉진 행사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비비를 전용하여 본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55개구로 정하고 대의원 80명을 선출하기로 협의했다. 대의원 선거는 농협중앙회 김영수 부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각 단체에서 한 명씩 선거관리위원을 맡기로 했다.

(사)대한양계협회



2013 전국육계인 순회교육 일정 안내



경기도 양평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 모습

본회에서는 지난 2월 육계 계열화사업의 발전과 농가와 계열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전국단위로 ‘전국 육계인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1월 하반기 순회교육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지역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가. 전국육계인 순회교육 일정

지역	일시	장소	해당지역
경북	11.19(화) 14:30	상주 농업기술센터	상주,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안동, 구미, 김천, 의성
	11.20(수) 09:30	경북 농업기술원	칠곡, 성주, 고령, 경산, 청도, 군위, 경천, 경주, 포항, 청송, 영덕, 영양, 울진, 대구
경남	11.21(목) 09:30	진주 농업기술센터	고성, 거제, 통영, 사천, 진주, 하동, 산청, 함양, 남해
충남	11.26(화) 09:30	당진 농업기술센터	예산, 태안, 서산, 당진, 천안, 아산, 홍성
	11.27(수) 09:30	부여 농업기술센터	부여, 청양, 서천, 보령
	11.27(수) 14:30	논산 농업기술센터	대전, 논산, 금산, 계룡, 공주
충북	11.28(목) 14:30	충주 농업기술센터	청원,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제주	12.6(금) 14:30	제주 농업기술센터	제주 전 지역

부산경남도지회, 2013 양계인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이번 행사에는 지역농가들과 유관단체 관계자들 4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본회 부산경남도지회에서는 회원농가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11월 5일(화) 김해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2013 양계인가족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산경남지역의 농가

간의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된 ‘2013 양계인가족 한마음대회’에는 지역 농가들과 유관단체 관계자들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경남축산단체협의 강래수 회장의 축사와 더불어 회원간 단합을 위한 명랑운동회가 진행되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다양한 게임행사와 행운권 추첨, 노래자랑을 통해 회원간에 긍정적 경합을 통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 개최



토종닭협회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추수의 계절을 맞아 올해로 5번째 맞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가 열려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협회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금호동 주민센터에서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해주었다. 이날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토종닭을 기증해 준 것에 대해 모인 모든 분

들이 감사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운동을 계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1고3저 식품인 토종닭고기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사업이다.

토종닭 홍보관 마련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시식행사를 하며 우리종자인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제17회 정읍민속소싸움대회, 대전 전통시장 토종닭 소비·홍보시식 행사 참가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협회는 시식 행사에 참가해 토종닭 홍보관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북 정읍 농경문화체험관에서 열린 ‘제17회 정읍전국민속소싸움대회’와 지난 11월 4일 대전 전통시장 등 행사에 참가해 참관객에게 홍보 시식행사를 하여 우리 종자인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토종닭 ‘한담’을 제대로 알리고 토종닭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행사로 승화시켜 토종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토종닭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토종닭 소비 저변을 넓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외서 고병원성 AI 재발하여 농가의 철저한 차단방역 필요성 대두돼

호주·중국 등 AI 재발로 닭 집단폐사 및 3명의 추가감염자 발생

한동안 잠잠해졌던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면서 철저한 AI차단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호주에서는 지난 10월 8일 뉴사우스웨일즈 영 지역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7N2형)가 발생해 감염된 닭이 모두 폐사했다. 또한 중국에서는 지난 10월 15일 저장성 사오싱에 거주하는 35세 남성이 신종 AI(H7N9형)에 감염되었으며 저장성 자싱에 사는 67세 농부도 신종 AI(H7N9형)에 감염되어 현재 위독한 상태이다. 지난 11월 6일에는 중국 광둥성에서 3세 유아가 고병원성 AII(H7N2형)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신종 AI로 130여명이 감염되었으며 이중 45명이 사망했다. 캄보디아 위생부(MoH)도 지난 10월 17일 Kampong Thom 주의 O-Raing 마을의 8세 소녀에서 금년 들어 21번째 AI(H5N1형) 인체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AI에 감염된 소년은 닭에게 먹이 주는 것을 돕는 과정에서 죽은 가금과 직접 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 겨울 독감 시즌에 또다시 H7N9형과 H7N9형 AI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상황도 철새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경남도 양산시 상북면 일대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조류 배설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였다. 다행히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되었으나 앞으로도 이런 의심사례는 점점 증가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AI 재발방지를 위해 올해 10월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AI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해 놓은 만큼, 농가에서도 해외 AI 유입 방지를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경연, 11월 육계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1,800~2,000원/kg 전망

닭고기 공급량 감소하고 수산물 대체효과로 닭고기 수요 증가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11월 육계산지가격이 전년 대비 9~22% 상승한 1,800~2,000원/kg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9월까지 폭염피해 영향이 지속되어 종계 생산성이 하락했으며, 10월 병아리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폐사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도계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6.3% 감소한 5,663만 마리로 전망했다. 9월 검사실적 기준 닭고기 수입량이 전년 대비 10.7% 증가한 7,866톤으로 나타나, 11월 닭고기 수입량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었던 전년보다 5.6% 증가한 8,208톤으로 전망했다. 10월 닭고기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 영향으로 비축물량이 전년 동월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10월 6일 기준 냉동 비축물량은 전년 대비 52.4% 감소한 432만 마리라고 밝혔다. 결국 도계 마릿수와 비축물량 감소로 11월 닭고기 공급량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7,162만 마리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 조사결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누출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산물 대체수요로 7.4%의 가정 내 닭고기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방사능에 따른 수산물의 닭고기 대체효과는 11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농경연은 판단했다. 따라서 농경연은 11월 닭고기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고 닭고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1월 육계산지가격은 전년보다 9~22% 상승한 1,800~2,000원으로 전망했다.

Today's
맛있는
닭고기 요리

원앙죽

닭을 삶은 국물에 좁쌀, 찹쌀, 울무, 산약, 백복령 등을 넣어 부드럽게 섞어 만든 죽은 소화흡수가 잘된다. 특히 현대인의 스트레스 회복과 병후노약자와 임산부, 수험생들에게 좋은 음식이다. 소금간은 먹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다.

재료 닭 1마리(1kg), 물 25컵, 대파 1뿌리, 파슬리 1입, 월계수 1입, 통후추 15알, 찹쌀 500g, 차조 100g, 울무 200g, 산약 50g, 연밥 50g, 백복령 80g, 잣 1/2컵, 은행 40개, 소금

Cooking

1. 닭은 깨끗이 손질하여 4ℓ의 물을 붓고 활발히 끓어오르면 거품과 기름을 걷어내고 대파, 파슬리, 월계수, 통후추를 넣고 1시간 정도 불이 세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삶은 다음 삶은 발라서 사방 1cm 크기로 썰거나 찢고 육수는 고운체에 걸러놓는다.
2. 찹쌀과 좁쌀을 깨끗이 씻어 불려놓고 나머지 재료도 깨끗이 씻어 놓는다.
3. 닭을 삶은 육수 4ℓ에 찹쌀, 좁쌀, 울무, 산약, 백복령을 넣고 30분간 또는 80% 정도 끓인 다음 은행, 잣, 닭고기를 넣고 다시 한번 끓여 완성한다. 먹기 직전에 소금간을 한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14		11	10
		13	12		
2	3		9	8	
	4				
5			7		
	6				

◇ 가로풀이

- 1 건조시킨 포도
- 2 음악 등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정해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행위
- 4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지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 5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일
- 6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 7 음식의 맛을 알맞게 맞추는 데에 쓰는 재료
- 9 출하일령이 42~49일로 생체 무게가 25~28kg으로 부분육 생산에 적합하도록 사육되는 닭
- 11 흥겨울 때 내는 소리, 'OO안고 기뻐하다'
- 12 한 사람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적은 기록

◇ 세로풀이

- 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3 이름은 같으나 사람이 다른, 또는 그러한 사람
- 7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쏟음
- 8 예술 작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조화, 균형, 울동 따위의 미
- 10 쉽게 남과 다투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2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림
- 14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

59호 정답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ㅞ	ㅟ	ㅛ
	ㅝ	ㅞ		ㅟ	ㅠ	
ㅡ		ㅣ	ㅊ		ㅋ	ㅌ
ㅍ	ㅑ		ㅓ	ㅕ	ㅗ	ㅛ



양계
비법전수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환기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축사 내 암모니아가스 농도는 일령에 따라 변한다든가 어떠한 한 가지 요인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하지 않고 깔짚의 수분함량, 온도, 환기량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변하며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일령이 같아든가, 열풍기 종류가 같아든가 할 경우에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외국의 일부 학자들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환기

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다. 이산화탄소는 닭들의 호흡에 의해 발생되며 사육일령이 증가하면 호흡량도 증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환기량 기준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배출하기 위한 최소 환기

량을 높게 해 주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육계의 일령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환기요구량 (CFM/10,000수)

일령	CO ₂ 발생량 / 일	환기 요구량
1	57,000 L / 일	525 CFM
7	107,000 L / 일	1000 CFM
14	200,000 L / 일	1850 CFM
21	320,000 L / 일	2950 CFM
28	455,000 L / 일	4200 CFM
35	600,000 L / 일	5500 CFM

S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 차단방역 철저
S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